

공공기관 번역현황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신 지 선
(이화여대)

1. 서론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 각 부처에서 한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많은 번역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번역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수준 이하의 번역이 공공분야에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번역 현황 및 구조적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번역 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각 기관의 번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번역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 기관 중 기관의 성격에 따라 문화 번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중 17개 기관(19개 부서), 기초 예술 번역 기관 12개 기관, 한국학 관련 번역 기관 7개 기관을 설문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문화 관광 사업 시행과 국가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 번역 기관이 수적으로 월등히 많

* 2007년도 <한국문학번역원>의 연구 지원을 받은 논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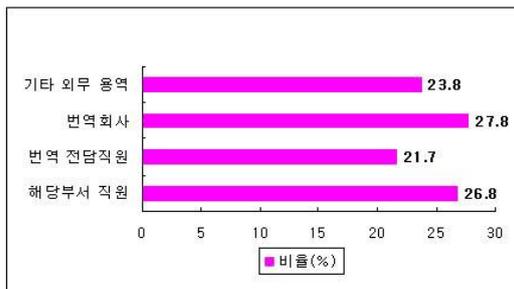
고, 한국학 관련 번역 기관은 최근 들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번역을 시행하는 기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조사 대상 기관 수가 분야별로 상이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설문지 내용과 관련해서는 질문 사항을 확정하기 전에 번역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대표적인 5개 기관을 방문하여 번역 업무 담당자와 심층 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 번역 현황 조사 설문지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하여 번역 수급 현황, 번역 감수 및 평가 시스템, 번역시 참고 자료 준비 현황, 개선 사항 제안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 설문 내용을 고찰하고 산출된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양질의 번역결과물을 양산할 수 있는 번역정책 차원의 제언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2. 번역 수급 현황

(1) 번역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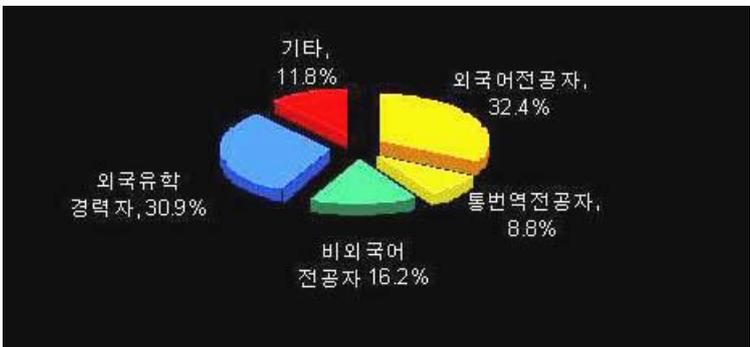


각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번역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담당자를 묻는 질문에서는 번역 회사가 27.8%, 해당부서 직원이 26.8%, 기타 외부용역이 23.8%, 번역 전담직원이 21.7%를 차지하였다. 기타 외부 용역은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소개를 받은 번역사에게

번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결국 공공기관의 번역을 수행하는 주체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해당 부서 직원이나 번역 전담 직원을 통해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번역 수요가 충족되는 경우가 절반 정도였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체 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 번역 회사나 외부 번역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였다.

이번 설문 조사 대상 기관들은 주로 한국의 관광, 문화, 예술, 학문 등 한국 고유의 정보를 소개하거나 홍보하는 기관들이었다. 이들 기관에서 번역을 의뢰하는 자료에는 외국인에게 생소한 한국의 전문적인 용어 및 개념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외부 번역사가 번역을 담당하게 될 경우 번역의 정확성과 완성도가 낮아지기 쉬울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진다.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번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완성도는 별개의 문제이겠지만 적어도 원문의 주제 지식과 배경 지식 결여로 번역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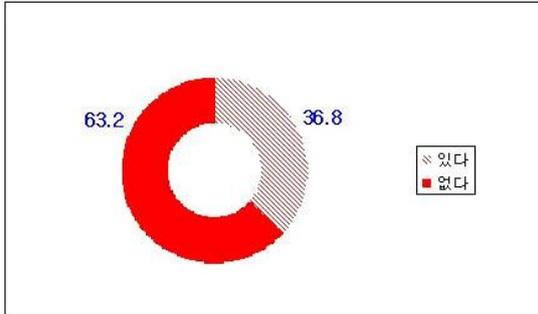
(2) 번역 업무 담당자의 학문적 배경



각 기관에서 번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전공은 외국어 전공자가 32.4%로 가장 많았고, 외국 유학 경력자가 30.9%, 비외국어 전공자가 16.2%, 통번역 전공자가 8.8%로 나타났다. 외국어 전공자나 외국 유학 경력자, 통번역 전공자가 70% 정도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기관에서 번역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이 번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비외국어 전공자

가 번역을 담당하거나, 기관 내에 번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 외부 업체에 일임한다고 대답한 기관도 약 30%에 달해 기관 내에 번역을 전담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3)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외부 번역사 및 번역 회사의 유무



각 기관에서 번역이 필요한 경우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외부 번역사나 번역 회사가 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있는 경우가 36.8%, 없는 경우가 63.2%였다. 즉 대다수의 기관이 번역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번역사나 번역 회사에 의뢰함을 시사한다. 각 기관에서 번역을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이전에 유사한 자료를 번역한 경험이 있는 번역사가 번역을 할 때 질적으로 완성도가 높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해당 기관에 대한 배경 지식, 번역해야 할 주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정보의 수집, 용어 사용의 일관성 측면에서 해당 기관의 번역을 처음 해보는 번역사보다는 나은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 설문 조사 결과와 같이 대부분의 기관에서 고정적으로 의뢰하는 번역사가 없다는 사실은, 이전에 번역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번역사나 번역 회사와 거래하지 못해서 매번 새로운 번역사로 대체함을 의미한다. 문화 사업, 기초 예술 및 한국학 연구를 통해 한국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공공기관에서 안정적으로 번역을 의뢰할 수 있는 번역사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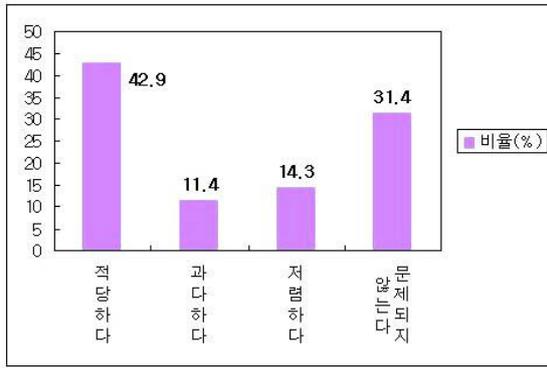
(4) 각 언어 방향에 따른 번역물의 비중



각 기관에서 번역이 이루어진 자료의 비중을 언어 방향에 따라 구분해 본 결과, 한국어에서 외국어로 번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71.5%, 반대로 외국어에서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28.5%였다. 외국의 자료를 들여와서 한국어로 번역하여 국내에 소개하기보다, 한국의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에 소개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한국어에서 외국어로 번역하는 번역물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은 외국어에 능숙하며 번역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번역사의 수요가 절실함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외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전문 인력에 비해 한국어에서 외국어로 번역하는 우수한 전문 인력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번역 방향은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번역이 대부분이므로 공공기관에서 이 분야의 전문 번역사나 감수자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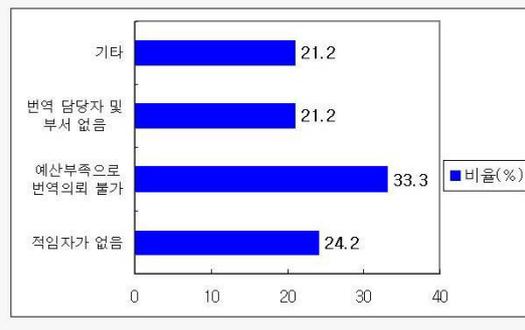
(5) 외부에 번역을 의뢰했을 경우 번역 요율에 대한 반응



외부에 번역을 의뢰하여 번역료를 지불하는 경우, 번역료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 42.9%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고, 31.4%가 질적으로 우수한 번역을 위해서는 번역료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과다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1.4%, 오히려 저렴하다고 한 경우가 14.3%였다. 여기에서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번역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번역료를 개의치 않는다는 기관이 31.4%에 이르고, 이전의 번역료가 저렴하다고까지 응답한 경우가 11.4%나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많은 공공기관에서 번역료를 고려하여 번역사나 번역회사를 선정하기보다 고가의 번역료를 지불하더라도 번역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번역사나 번역회사를 찾는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많은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번역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절실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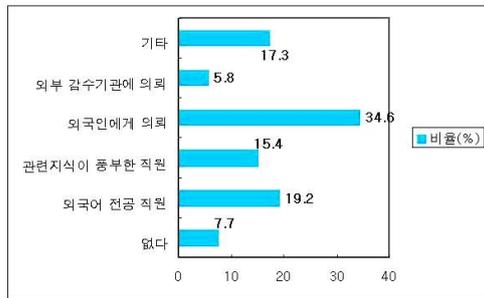
(6) 기관 내의 번역 수요가 충족되는지 여부



현재 기관 내에 번역이 필요한 자료가 많은데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서 33.3%가 예산 부족을 꼽았고, 24.3%가 번역할 책임자의 부재를, 21.2%가 번역 사업을 추진할 담당자나 담당 부서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기타로 분류된 21.2%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서 내에 배정된 번역사 인력이 부족함을 지적한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대부분의 기관에서 번역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인력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됨을 알 수 있다.

3. 번역 감수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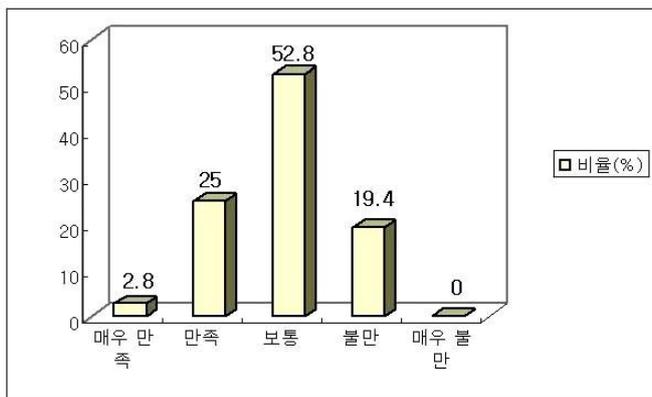
(1) 번역물을 감수하는 주체



각 기관에서 번역물을 감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는 조사에서 외국인에게 감수를 의뢰하는 경우가 34.6%, 외국어를 전공한 직원이 감수하는 경우가 19.2%, 기타가 17.3%, 번역물의 주제 지식과 배경 지식이 풍부한 직원이 감수하는 경우가 15.4%, 별도로 감수하지 않는 경우가 7.7%, 외부 감수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5.8%로 나타났다.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외국 학위 교수나 외국어 전공 교수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번역 업체에 외국인 감수를 함께 의뢰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번역물의 주제 지식과 배경 지식이 풍부한 직원이 감수를 하는 경우가 15.4%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는 번역물의 수준과 완성도가 단순히 능숙한 언어 구사력 이상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번역물의 특성상 외국인들에게 생소한 한국적인 용어, 개념, 표현 등이 많이 등장하여 그러한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외국어로 옮겼을 경우 명백한 오역이나 부적절한 번역이 되기 쉽다. 번역사가 제대로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원문의 종류에 상관없이 원문 주제에 관한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번역을 담당하는 번역사에게는 이러한 역량과 자질이 더욱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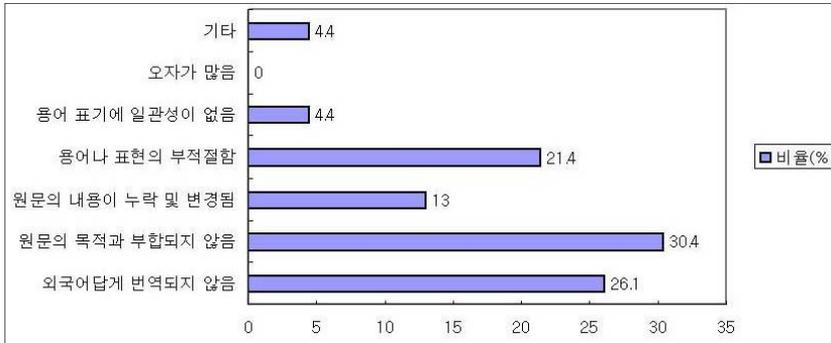
(2) 외부 번역사나 번역 회사가 한 번역물에 대한 만족도



공공 기관에서 외부 번역사나 번역 회사에 번역을 의뢰했을 때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절반 가량(52.78%)의 응답자가 보통이라고 밝

혔고 만족한다가 25%, 매우 만족한다가 2.8%, 불만스럽다가 19.5%였다. 따라서 전체 가운데 만족하는 비율은 30%가 채 못 됨을 알 수 있다.

(3) 외부에 의뢰한 번역물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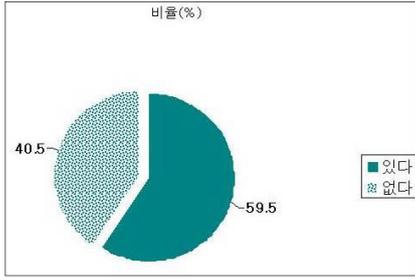


위의 질문에서 번역물에 불만스럽다고 응답한 경우를 대상으로 불만스러운 이유를 조사해 보았다.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고르라고 했을 때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세 가지 이유는 외국어답게 번역되지 않은 점(23.6%), 번역문이 원문의 목적(홍보, 안내, 정보 전달 등)에 부합하지 않은 점(22.1%), 번역된 용어나 표현이 부적절한 점(28.9%)이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불만스러운 첫 번째 원인은 원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번역된 점(30.4%)이었다. 번역문이 원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번역된 용어 및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번역사가 번역을 의뢰한 기관의 특성과 원문의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번역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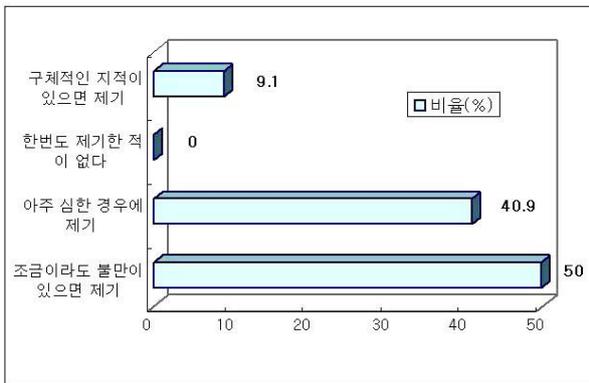
특히 관련 용어나 표현이 부적절하게 번역되었다는 지적을 보면 이번 연구의 조사 대상인 한국의 문화, 예술, 한국학 관련 용어를 번역시 일관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외국어답지 않은 번역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다는 지적에서 외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많은 번역사들이 공공기관의 번역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외부 번역에 불만이 있어 문제 제기를 한 경험 및 빈도



번역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조사 대상 기관의 59.5%가 문제 제기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가운데 50%가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제기한다고 밝혔다. 40.9%는 아주 심한 경우에, 9.1%는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지적이 있는 경우에만 문제를 제기한다고 응답하였다.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응답자의 절반에 불과하는 것으로 보아 공공기관에서 번역의 질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머지 절반 가량은 불만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지적이 있는 경우에만 번역 결과물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번역 업무 담당자가 번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번역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5) 번역물에 문제 제기를 한 구체적인 이유

외부에 의뢰한 번역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번역사나 번역 회사에 문제를 제기한 경우, 어떠한 문제 때문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해보라는 문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응답을 찾아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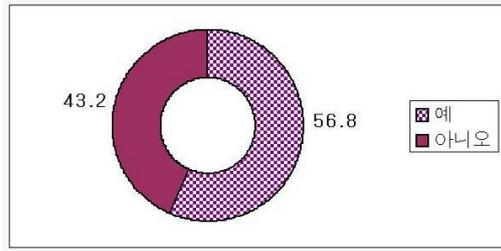
- 1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 부족
- 1 원문 내용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
- 1 원문과 달라진 의미와 내용
- 1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
- 1 부적절한 용어 및 표현 사용
- 1 용어 표기의 통일성 및 일관성 결여
- 1 비문, 오타자 등 기본 문법적 오류

기본적인 문법 및 어휘 차원의 오류를 지적한데서 두 가지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중요한 공공기관의 번역이 번역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번역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과 둘째, 번역 작업을 마친 후에 적절한 방식으로 감수가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오류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감수 과정이 생략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 부족과 원문 내용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으로 원문과 달라진 문체와 의미의 번역 결과물이 발생하는 사태는 공공기관의 번역이나 감수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번역사나 번역 기관이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매번 새로운 번역사를 고용하여 번역을 의뢰하면 원문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기대하기 어렵고 그 결과 번역물의 완성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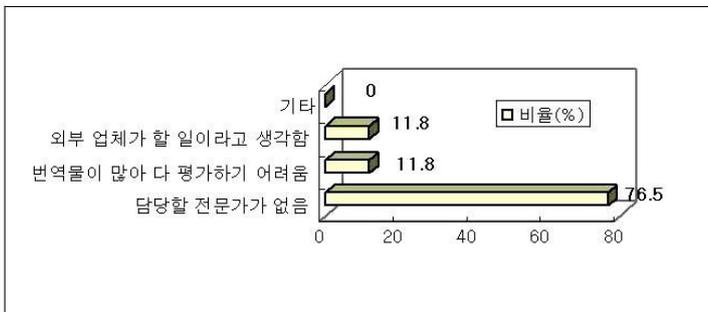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용어 표기의 일관성 및 통일성 결여는 번역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작업이 시행되지 않은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용어 표기를 통일하고 일관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용어 및 표현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모든 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일 것이다.

(6) 번역 결과물의 번역 수준에 대한 평가 여부



각 기관에서 번역이 이루어진 결과물에 대해 번역 수준을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평가를 하는 기관이 56.8%, 평가를 하지 않는 기관이 43.2%로 집계되었다.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이 조사 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번역물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후 검증 작업이 부재함을 의미하고, 이는 번역물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결과물을 사용함을 뜻한다. 번역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준이 낮은 번역 결과물을 만들어낸 번역사나 번역 회사에 또 다른 번역을 의뢰하게 될 것이고 질 낮은 번역물의 양산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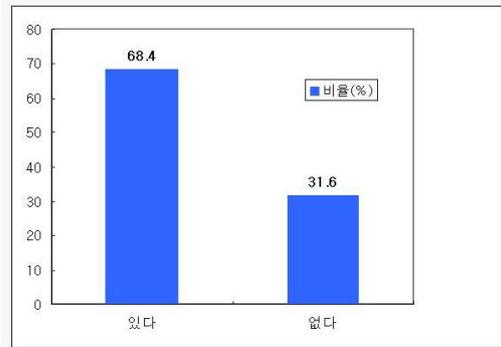
(7) 번역 수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기관 내에서 번역 수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43.2%의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이유를 조사해 보았다.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76.5%가 기관 내에 평가를 담당할 전문가가 전무하다고 밝혔고, 전문가는 있지만 번역물의 양이 많아 다 평가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11.8%, 감수는 번역을 맡은 외부 업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11.8%였다. 기관 내에 번역 수준을 평가할 전문가의 부재가 가장 주요한 이유임을 알 수 있다. 전문가의 부재와 전문가가 있다 해도 번역물의 양이 많아 다 평가하기 어렵다는 응답에서 공공기관의 번역을 전문적으로 감수하고 수준을 평가해 주는 공공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번역 수준의 평가는 번역을 맡은 외부 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여 평가 과정을 생략하는 기관이 11.8%라는 결과에서, 비록 일부 기관이기는 하지만 수준 높은 번역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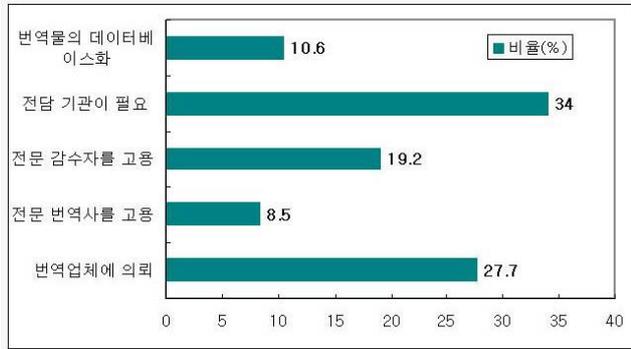
(8) 번역 수준에 대해 외부로부터 지적이나 평가를 들은 경험



번역 결과물에 관해 번역 담당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번역 수준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68.4%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31.6%는 없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관의 거의 70%가 번역 수준에 대해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은 외부에서 번역의 수준을 지적할 정도로, 기대에 미

치지 못한 번역 결과물이 많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지적을 한 주체는 외국어 전공 학자, 분야별 전문가, 재외 공관 직원, 관람객, 서비스 이용자, 독자, 사업 담당 직원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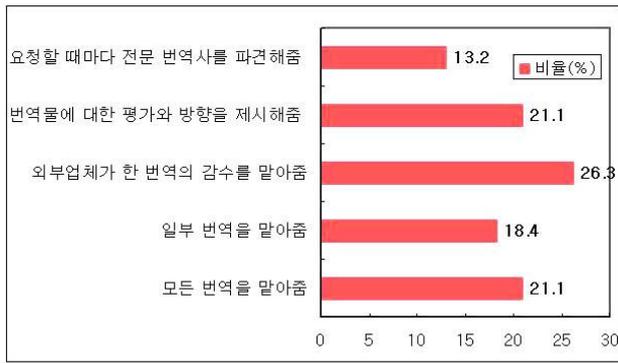
(9) 외주 번역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안



이처럼 외부 번역사나 번역 회사에 공공기관의 번역을 의뢰했을 때 번역의 수준과 완성도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각 기관의 번역 관련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대안을 무엇인지 조사해 보았다. 조사 결과, 34.1%의 응답자가 공공기관의 문서를 전문적으로 번역하거나 감수해주는 전담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27.7%가 번역료가 높더라도 신뢰할만한 번역업체에 의뢰한다고 응답하였다. 19.2%는 기관 내에 전문 감수자를 고용할 것을, 10.6%는 번역물의 체계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번역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할 것을 제시했다.

각 기관의 번역 관련 담당자들이 생각하기에 번역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은 공공기관 문서의 번역과 감수를 전담하는 전문적인 기관을 설립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번역물의 체계적 평가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화가 절실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0) 공공기관 번역 전담 기관이 설립된다면 기대하는 역할



공공기관에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기관이 설립된다면 그 기관에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는지 조사해 본 결과, 외부 업체가 한 번역의 감수 담당이 26.3%, 기관 내의 모든 번역 담당이 21.1%, 번역물에 대한 평가 및 방향 제시도 21.1%였다. 그리고 기관 내의 일부 번역을 담당해 준다가 18.4%, 요청하면 전문 번역사를 파견해 준다가 13.2%였다.

각 항목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감수 역할을 가장 많이 기대함을 알 수 있고, 모든 번역을 맡아서 수행해주거나 번역물 평가를 담당해 주기를 바라는 응답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응답 내용을 종합해보면 공공기관의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설립된다면 기관의 필요에 따라 번역, 감수, 평가를 담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번역 참고 자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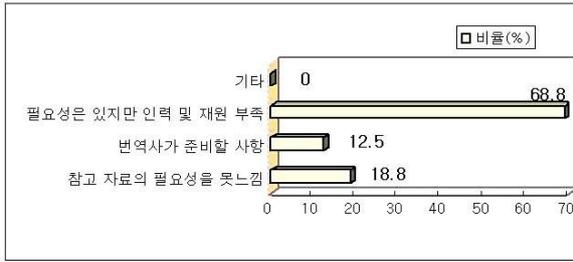
(1) 유사한 문서 번역에 참고할 수 있는 용어집이나 참고 자료의 구비 여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전문 용어나 표현 등을 수집하여 정리해 놓은 목록이나 사전이 있으면 이후의 번역에 효용이 클 것이며 번역의 정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조사 대상 기관에 이러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준비된 기관이 45.9%, 준비가 안 된 기관이 48.7%, 준비 중인 기관이 5.4%로 나타났다.

번역사에게 제공할 용어집이나 참고 자료가 없으면 여러 원문에 등장하는 같은 전문 용어나 표현이 매번 조금씩 다르게 번역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번역사가 기관 특성에 대한 이해와 원문의 목적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번역을 할 경우, 부적절한 용어로 번역될 수 있고 고유명사 표기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용어 사용의 통일성이 결여되기 쉽다. 이러한 현상은 곧 번역물의 수준 저하로 이어진다. 따라서 조사 대상 기관에 용어집이나 참고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시급함을 시사해 준다.

(2) 용어집이나 참고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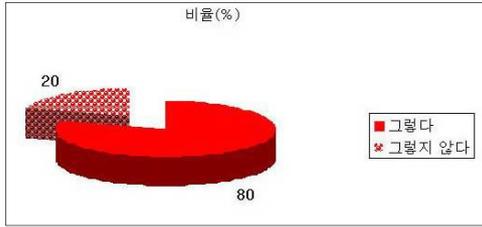
번역사에게 제공할 용어집이나 참고 자료가 기관 내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 보았더니, 68.8%에 이르는 대다수 기관이 필요성은 느끼나 담당 인력이나 자원 부족을 지적하였다. 즉 70%에 달하는 공공기관에서 용어집이나 참고자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작업을 해낼 인력이 부족하거나 재정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미루고 있는 실정이었다.

번역이 이루어졌던 이전의 번역 결과물을 토대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수정을 가하여 향후 번역에 필요한 용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숙원사업이다. 시간적, 재정적 부담이 큰 광범위한 사업이라서 시행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공기관들 간에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시간적 경제성과 번역의 수준 측면에서 크나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조사 결과는 용어집이나 참고 자료를 번역사가 알아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2.5%라는 사실이다. 이번 설문대상 공공기관에서 번역을 의뢰하는 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전통, 문화, 예술, 학문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문용어와 고유명사가 대거 등장한다. 번역사가 가지고 있는 주제 지식과 원문에 대한 배경 지식은 각 기관의 담당자들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아주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번역을 의뢰한 기관도, 번역을 담당하는 번역사도 최종 목적은 우수한 번역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기관에서 번역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번역의 수준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번역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일단 번역을 의뢰한 이상 모든 임무는 번역사의 소관으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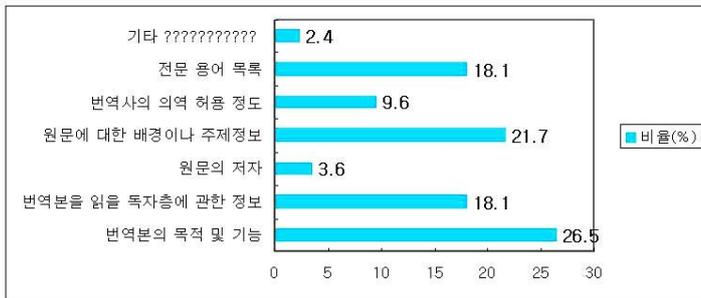
한다면 번역상에 크고 작은 문제가 대두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3) 번역을 의뢰할 때 번역시 유의할 사항의 사전 공지 여부와 사전 공지하는 내용



이번에는 각 기관에서 번역을 의뢰할 때 번역물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번역사에게 번역시 유의할 사항을 미리 전달하는지 여부와 미리 공지한다면 어떠한 사항들인지를 조사해 보았다. 80%의 응답자가 미리 알려준다고 하였고 20%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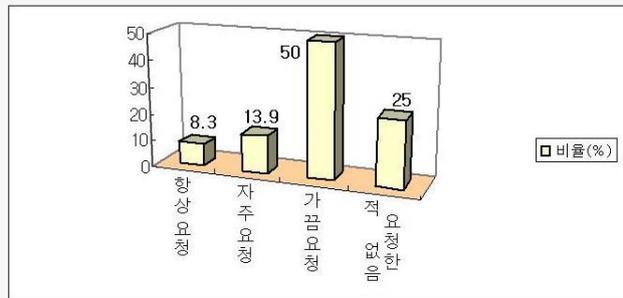
번역사가 원문의 목적과 번역본의 기능, 대상 독자층에 관한 정보 등을 미리 파악하면 번역 과정에서 결정을 내릴 때 그러한 정보를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 글을 읽을 것이며 원문의 저자가 어떠한 의도로 이 글을 집필했는지를 파악하고 번역을 하는 것과, 전혀 그런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번역을 하는 것은 그 결과물을 두고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번역을 의뢰하는 기관에서 도움이 될 정보를 많이 제공하면 내용의 오역 방지와 질적 향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미리 유의할 사항을 알려주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번역사에게 공지하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번역본의 목적 및 기능(26.5%), 원문에 대한 배경이나 주제정보(21.7%), 번역본을 읽을 독자층에 관한 정보와 전문용어 목록(각 18.1%), 번역사의 의역허용 정도(9.6%) 순이었고 기타에 영상 번역의 경우 자막 수 제한 등의 기술적인 문제와 로마자 표기법 준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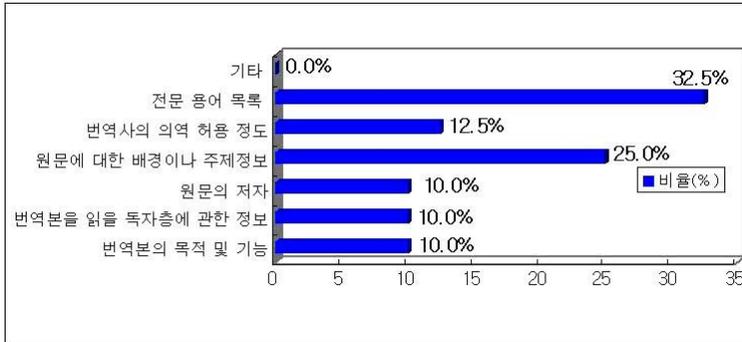
이번 설문조사 대상 기관의 성격은 문화 관광, 기초 예술, 한국학 연구 등으로 원문에 한국의 고유한 문화 및 예술 소개, 관광 사업 홍보, 학문적 접근 등의 뚜렷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번역사에게 원문의 목적 및 기능을 미리 공지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한국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서 번역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배경 지식과 주제정보를 공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전에 목적과 기능을 분명히 밝혀주면 예를 들어 홍보문이 설명문처럼, 안내문이 논문처럼 번역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4) 번역사나 번역 회사에서 번역 관련 추가 정보의 요청 여부 및 요청하는 내용



이번에는 번역사나 번역회사에서 자료 및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지, 만약 요청했다면 어떤 추가 정보를 원하는지 조사해 보았다. 설문 대상 기관의 절반인 50%가 ‘가끔 요청한다고 응답하였고, 13.9%가 ‘자주 요청한다’, 8.3%가 ‘항상 요청한다’였는데,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응답도 25%나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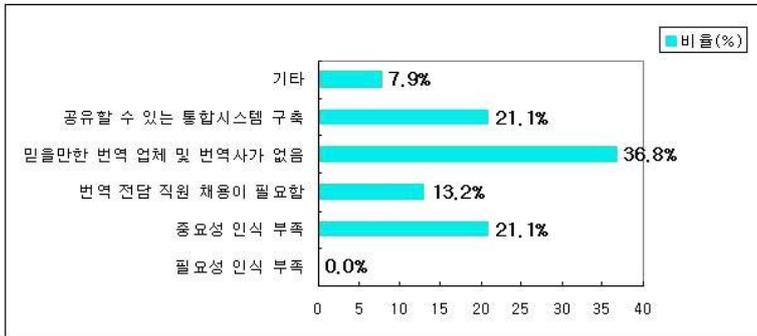
물론 번역을 의뢰하는 기관에서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서일 수도 있고, 번역을 맡은 원문에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정보 요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4분의 1, 즉 공공기관의 번역을 맡은 번역사의 4분의 1이 단 한 차례도 번역에 도움이 될 어떠한 정보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번역사가 번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어떠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에 관한 조사 결과, 전문 용어 목록이 32.5%였고, 원문에 대한 배경이나 주제정보(25%), 번역사의 의역 허용 정도(12.5%), 번역본의 목적 및 기능, 번역본을 읽을 독자층에 관한 정보, 원문의 저자가 각각 10%를 차지했다. 번역사들이 번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요청하는 정보가 전문 용어 목록이라는 결과를 보더라도 공공기관의 번역을 위해서는 전문용어 번역의 통합적 데이터베이스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5. 개선 사항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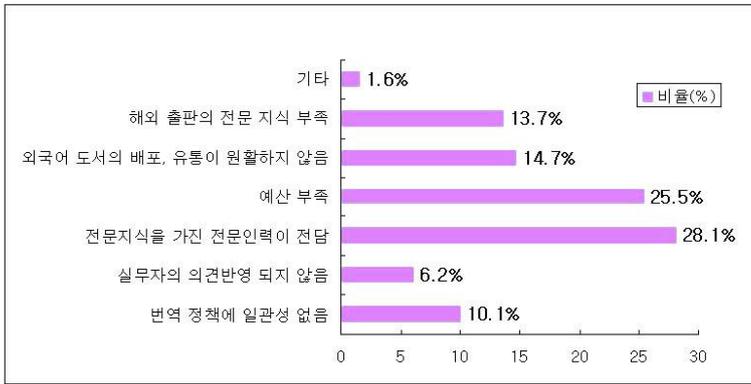
(1) 각 기관의 번역 실태를 고려할 때 개선이 시급한 상황



설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각 기관의 번역 환경을 고려하여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조사해 보았다. 각 기관에서 번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공기관의 번역 실태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한 세 가지 사항은 안정적으로 번역을 맡길 번역업체나 번역사의 부재(36.8%), 번역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21.1%), 기관 내에 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21.1%)이었다. 그리고 부서 내에 번역이나 감수를 전담할 직원 채용 필요성(13.2%) 등의 응답이 있었다.

각 기관의 실무자들은 기관 내에 번역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는데 번역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번역업체나 번역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심각한 당면 문제로 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오역을 막고 용어의 통일성을 유지하며 시간적, 경제적으로 번역 업무에 효율성을 높여줄 통합적 번역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2) 번역 정책과 관련하여 개선이 시급한 사항



이번에는 번역 정책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조사해 보았다. 응답자의 28.1%가 전문지식을 지닌 전문인력이 번역 관련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고 하였고 25.5%가 번역수요에 비해 배정되는 예산이 너무 부족함을 꼽았다. 외국어로 번역된 도서의 배포 및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이 14.7%, 해외출판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이 13.7%, 번역정책에 일관성이 없음이 10.1%를 차지하였다.

이는 기관 내에 번역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전문 인력과 함께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하고 나서 제대로 배포하거나 유통하지 못해서 애써 만들어낸 번역 결과물이 사장되는 문제도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해외 출판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 역시 번역 사후의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므로 번역 자체 뿐 아니라 번역물의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관이 설립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3) 공공기관 번역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정부에 기대하는 지원 내용



공공 기관의 번역 사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기대하는지 조사해 본 결과, 가장 많은 대답은 공공기관의 번역을 의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번역 기관의 마련(31.9%)이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번역에 필요한 용어집 및 표기 기준안을 마련하여 배포(23.1%), 공공 기관의 번역을 잘 할 수 있는 번역사 양성 및 공급(19.1%), 공공기관의 전문적인 감수를 담당할 기관 마련(16.9%)이 있었고 소수의 의견으로 공공 기관의 번역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시키는 번역 교육 프로그램 마련(5.9%)도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번역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많은 담당자들은 번역을 안심하고 의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번역 기관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적인 감수를 담당할 기관을 요구하는 응답도 많았다. 이는 각 기관에서, 번역이 필요한 자료의 특성을 살려 제대로 번역하거나 감수해 줄 기관을 절실히 필요로 함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응답자의 수가 많았던 용어집 및 표기 기준안 마련도 수 차례에 걸쳐 지적되는 사항이므로 번역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반드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6. 결 론

공공번역 사업의 방향을 모색하려는 연구의 일환으로 문화 관광, 기초 예술, 한국학 연구를 담당하는 총 3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과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와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에서는 질적으로 수준 높은 번역 결과물을 만들어낼 번역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 이외에 번역물이 원문의 목적과 번역문의 기능, 독자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수용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는 평가를 할 전문가의 부재, 인력 및 예산의 부족이 주된 이유였다.

설문 대상으로 선정한 공공기관은 관광 문화 안내, 기초 예술 홍보, 한국학 관련 정보 전달 등을 담당하는 기관들이다. 따라서 번역을 의뢰하는 대부분의 자료에서 한국 고유의 용어, 개념, 표현 등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공공기관 번역물의 경우, 번역물의 주제지식과 배경 지식이 풍부한 직원이 감수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번역시 원문의 목적(홍보, 안내, 정보 전달 등)에 부합하는 용어 및 적절한 표현의 사용이 중요하다. 그런데 번역을 수주한 번역사가 번역을 의뢰한 공공기관의 특성과 전문적인 주제지식 및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번역결과물은 내용의 오역과 부적절한 용어 및 표현의 사용으로 이어진다.

일반 번역물 감수의 경우, 외국어에 능통한 감수자가 번역의 질을 평가하고 감수하는 방식이 권장될 수 있으나, 공공기관 번역의 경우, 번역물 내용의 특성으로 인하여 주제 지식이 풍부한 직원과 언어적 측면에서 번역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외국인의 공동 감수가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번역물이 한국 고유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고,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각 공공기관은 번역물의 완성도와 질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지적한 인적, 재정적 요인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번역물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감수가 시행되지 못하므로 본 논문은 공공기관의 문서를 전문적으로 번역하거나 감수해주는 정부 산하 전담 기관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정우. 2004. ‘번역 평가의 실제’. 『번역학연구』 제5권 1호.
- 손지봉. 2006. ‘문학번역 평가기준에 관하여’.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제8권 1호.
- 이상원. 2006. 『한국 출판 번역 독자들의 번역평가규범 연구』. 한국학술정보.
- 졸탄 도네이. 2003. 박명수 옮김. 『외국어연구를 위한 설문지 작성 방법론』. 한국문화사
- Adab, Beverly. 2000. ‘Evaluating Translation Competence’. In Schäffner and Adab (Eds.) *Developing Translation Competence*.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Brunette, Louise. 2000. ‘Towards a Terminology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In Maier (Ed.) *Evaluation and Translation*.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Campbell, Stuart. 1998. *Translation into the Second Language*. London/New York: Longman.
- McAlester, Gerard. 2000. ‘The evaluation of Translation into a Foreign Language’. In Schäffner and Adab (Eds.) *Developing Translation Competence*.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Nord, Christiane. 2005. *Text Analysis in Translation: Theory, Methodology, and Didactic Application of a Model for Translation-Oriented Text Analysis*. Amsterdam/Atlanta: Rodopi.
- Pym, Anthony. 2001. *Translation Practic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Reiss, Katharina. 2000. *Translation Criticism-The Potentials & Limitations: Categories and Criteria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Abstract]

Translation-related Problems in Government Institutions
- Survey Results and Analysis

Shin, Jisun
(Ewha Womans University)

Recent years have seen an increase in the demand for translation services in the public sector in Korea. The situation has created new challenges to ensure high-quality translation with the lack of professional translators in this field. This project was designed to diagnose the structural problems of translation services in the public sector and figure out how to address the situation. The data were gathered from a questionnaire survey on 38 local authorities. The major sectors chosen for a survey to analyze the problems are culture and tourism, arts and Korean Studies.

The findings show some areas of concern that need to be addressed, such as the standards and quality of overall translation, the absence of systematic evaluation process, and the need to build national database of standardized terminology for consistent translation. The data also found few authorities go through appropriate editing process required to ensure the quality of translation.

Most importantly, most of the public sectors are in dire need of truly professional translators who are capable of offering not just solid language skills but also in-depth subject knowledge. In that regard, many of those surveyed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organization to provide high quality translation services for the public sector.

▶ Key Words: public sector translation, evaluation process, professional translators, subject knowledge, database of standardized terminology

신지선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번역학과 전임강사

관심분야: 번역평가, 번역교육

연락처: jisunshin@ewha.ac.kr

논문투고일: 2007년 10월 22일

심사완료일: 2007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07년 12월 15일